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23

如是任法 調治習氣 使稱理智增明  
 緣緣利物 行菩薩道 雖處三界內  
 無非法性淨土 雖經歲月 體不離時  
 任大悲智 以法隨緣故  
 此人雖不如上古過量人 一超登位  
 具足通力者 然以夙植善根 種性猛烈  
 深信自心 本來寂用自在 性無更改故  
 於諸世難 無有退失之患 華嚴論  
 所謂大心凡夫 能生  
 소위대심범부 능생  
 信證入故 生如來家 不言已生佛家  
 深信自心 本來寂用自在 性無更改故  
 於諸世難 無有退失之患 華嚴論  
 所謂大心凡夫 能生  
 소위대심범부 능생  
 信證入故 生如來家 不言已生佛家

혹유행자 문자심정묘지덕 신력수습  
 然以無始堅執我相 習氣偏重  
 緣緣利物 行菩薩道 雖處三界內  
 無非法性淨土 雖經歲月 體不離時  
 任大悲智 以法隨緣故  
 此人雖不如上古過量人 一超登位  
 具足通力者 然以夙植善根 種性猛烈  
 深信自心 本來寂用自在 性無更改故  
 於諸世難 無有退失之患 華嚴論  
 所謂大心凡夫 能生  
 소위대심범부 능생  
 信證入故 生如來家 不言已生佛家  
 深信自心 本來寂用自在 性無更改故  
 於諸世難 無有退失之患 華嚴論  
 所謂大心凡夫 能生  
 소위대심범부 능생  
 信證入故 生如來家 不言已生佛家

인연따라 보살도 행하면

삼계안에 처하더라도 법성의 정도

爲上近也  
 위상근야

이렇게 법에 맡겨 습기(習氣)를 다스려서 이치에 맞는 지혜를 더욱 밝게 하고, 인연 따라 만물을 이롭게 하는 보살도를 행한다면 비록 삼계(三界) 안에 처하더라도 모두가 법성(法性)의 정도요, 비록 세월이 지나도 본체는 때를 떠나지 않는다. 대자비의 지혜에 맡겨 법으로써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록 옛날에 뛰어난 사람이 한 번에 성인의 지위에 올라 신통력을 갖춘 이보다는 못하더라도 속세에 심은 그 선근(善根)으로 성품이 영리하여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고요하고 자재로운 그 성품은 변함이 없음을 깊이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실망할 염려가 없다. <화엄론>에 '이른바 큰 마음을 지닌 범부는 신념으로 깨달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래의 집에 태어난 것이지, 부처의 집에 태어나서 대보살이 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하였다. 오늘날 이렇게 마음 닦는, 이는 상등 근기라 할 것이다.

잊지 못하는 자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는 모두 인연 따라 환영(幻影)으로 생긴 것이라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물거품과 같이 그 속이 비었는데 무엇을 <나>라 하고 무엇을 <남>이라 하겠는가' 하는 공관(空觀)으로 아상을 깨부수어야 한다. 이렇게 관찰하여 세상의 번뇌 티끌을 잘 씻고, 항상 결승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만심을 없애며 현재의 번뇌를 억제한다면 선정과 지혜에 힘입어 차츰 밝고 고요한 본성에 들어갈 것이다.

然此人 若無萬善 助開自力 恐成迂滯  
 然此人 若無萬善 助開自力 恐成迂滯  
 然此人 若無萬善 助開自力 恐成迂滯  
 然此人 若無萬善 助開自力 恐成迂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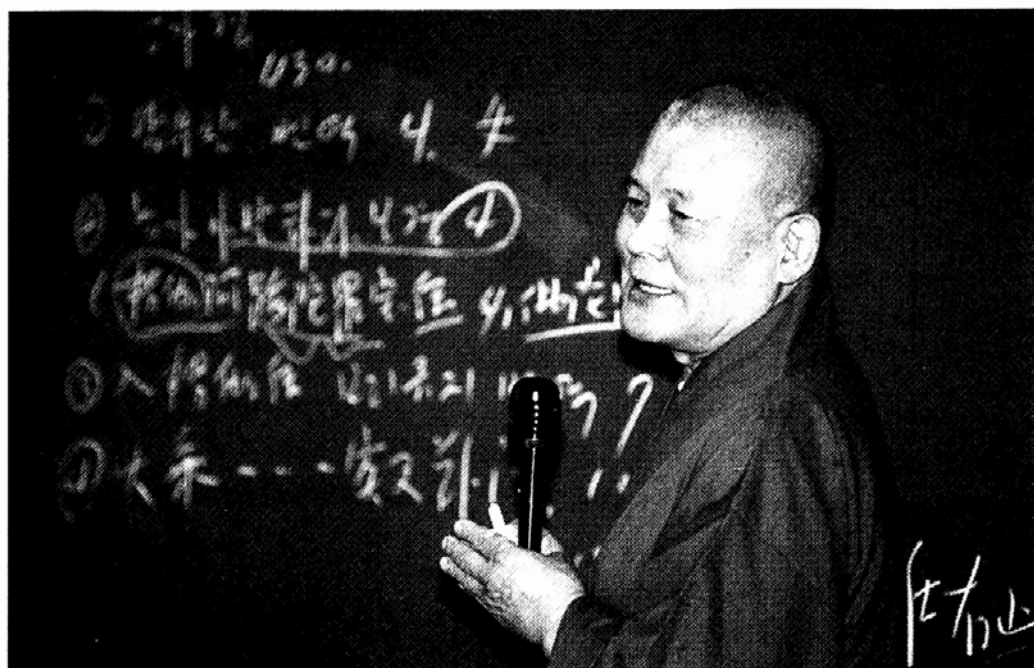
或有行者 聞自心淨妙之德 信樂修習

김원각<시인·역경위원>

가까이서 뵈 큰스님

지관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공부하고 가르치고 책내고...



지관스님은 출가이후 55년 동안 오로지 불교학연구와 후학양성의 일로 매진해 왔다.

"답마가 헤가에게 처음 법을 전할 때 <능가경>을 전했다... <능가경>의 핵심이 무엇이나?"

6월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강의실.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인 지관스님의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박사과정 2001년 첫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선종사를 공부하는 2시간 내내 힘이 넘치는 고음의 경상도 사투리로 강의하는 스님과 제자들의 진지한 눈빛이 강의실을 한껏 달구어 놓았다.

지관스님은 올해 칠순이다. 그럼에도 하루 4시간이상 잠자지 않고,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하는 스님의 모습은 그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서운 경적이다. 스님은 큰 절 주지 정도면 당연히 있을 법한 자가용도 없다. 아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버스타고 한 장이면, 별 어려움없이 아침 저녁으로 정릉 경국사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오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치장스러운 자가용을 달고 다녀야 하느냐며 겸손한 삶을 직접 행해 보이신다.

30년 넘게 강단에 서 오면서도 강의 1시간 전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강의할 내용을 다시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스님의 오랜 철칙이다.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 강좌 외에 매주 목요일에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자체 강의인 선전강독강좌를 직접 지도한다.

한국 불교계에서 스님의 위치는 실로 크다. 교학에서 일가를 이루었고, 가산불교대사님 편지, 한국금석학연구 등 스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스님의 활동기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959~70년까지. 강원에서 공부를 마친 스님은 10여년간 송가대학(강원)에서 후학양성과 함께 전승교화 주석서를 직접 발간했다. 이후 90년까지 20여년간은 동국대에서 인재를 양성하며, 종립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헌신 하였다.

이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설립 개원으로 시작되는 91년부터 현재까지 법보종찰 해인사 1200년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가야산해인사지>로 사찰역사기록의 전범을 보였으며, 20여년 전부터 시작한 최초의 불교대백과사전 <불교대사림> 편찬에 주력하고 있다. 총 15권으로 완간될 <가산불교대사림>은 현재 제4권의 간행을 앞두고 있다. 또 한국불교역사의 주체

-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
- 한국불교 정체성 찾기
- '불교대사림' 제4권 준비

라할 수 있는 1600년 간의 <역대고승비문총서>를 전 7권으로 정리하여 간행함으로써 우리 불교의 자존을 한껏 높였다.

기자가 스님을 찾았을 때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바로 앞 건물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골칫기 같은 기계의 쇠울음소리가 은통 연구원을 뒤흔들어 무척 소란스러웠다.

"스님, 이렇게 시끄러운데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뭐, 지는 지일 하는 기고, 내는 내일 하는 건데 신경 쓸 일이 뭐 있노."

무뚝뚝하면서도 다정한 대답에 멋쩍어서 다시 여쭙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의자에 앉아계시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게 없어. 그냥 하는 기지."

스님의 일과는 매일 오전 10시경에 경국사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혜화동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 나오는 것으로 시작해, 모든 직원이 다 퇴근한 밤 9시 반 경에야 끝난다. 가산연구원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일에서부터, 원고정리, 강의 준비, 강의 지도, 행정처리 등이 스님의 일상이다. 한주간의 살림살이가 마무리되는 토요일 오후에는 편찬실의 원고들을 모두 챙겨 주말동안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윤문하고, 일일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 메모까지 따로 달아서 가져올 정도다. 연구활동에 대한 스님의 열정과 책임감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단어 하나, 구절 하나 찾아내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번씩 서고의 대장경을 꺼내어 경문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 보니, 수선소에 맡겨야 할만큼 대장경들이 닳고 닳았다. 무거운 대장경을 들고 내리느라 스님의 어깨와 팔은 늘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연구하고 집필하느라 오랜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까닭에 허리가 좀 아픈 것을 제외하고는 칠순의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무뚝뚝한 말투와는 반대로 실제 스님은 무척 다정다감하신 분이다. 가끔 연구원 직원들에게 피지도 사주시고, 답사여행에

서는 예쁜 동자인형을 선물로 사서 나눠주실 만큼 속정이 깊다. 기자가 방문했던 날 스님은 꽃게를 앞을 지나가다 벌써 꽃을 피운 작고 예쁜 영산홍 화분을 식구 수대로 사서 하나씩 나눠 주셨다. 기자도 얼떨결에 그 화분 하나를 받아 들었다. 화분 고르는 모습 좀 찻게 앉아서 꽃 구경하시라는 사진기자의 요청에 스님은 "싫어. 그거 다 거지이야"하시며 꽃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다.

스님은 매일 오후 5시 경이면 연구원을 나와 근처 혜화동 거리 이곳 저곳을 다니다. 책과 씨름하느라 고단한 눈도 즐겁게 하고, 머리도 식히고, 젊음의 거리 대학로의 기운도 느껴보면서 오늘은 또 뭐 새로운게 없나 거리 이곳저곳을 두루 살피신다. 긴 우산을 지팡이 삼아 맡이다. "스님, 요즘도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시나요?"

밖에 걸린 사진을 보고 기자가 물었다.

"이제 비둘기가 없어서 못 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책길에 비둘기들에게 모이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 정화니 뭐니 해서 비둘기들을 모두 쫓아 버려 구경하기도 힘들어." 비둘기가 떠난 대학로가 못내 아쉬운 듯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신다.

스님은 요즘 <가산불교대사림> 제 4권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법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중량 3,300관

